

농가 소득 향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들어서

전주시-전주농협, 만성동 일원에서 준공식 가져 지역 특산품 상품화 유통·연간 2500톤 처리 가능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상품화·규격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와 전주농협은 14일 전주 만성지구에 위치한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국비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지면, 연면적 4,911㎡ 규모의 집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갖춘 시설로 지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마나리, 신선 딸기 등 채소도 선별포장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갖춰, 연간 2,500톤(65억5,000만원)의 농산물 처리가 가능해 지역의 유통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육이, 이번 센터 건립으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지역 농가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농가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처리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개선을 선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



전주시와 전주농협은 14일 전주 만성지구에 위치한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을 가졌다.

로 전주농협은 소비지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남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라며 “농업인들도 생산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의정 정책자문단 위촉

전주시의회는 14일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제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재생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주)유비에스디 대표 천상덕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회는 이번 위촉식에서 그동안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제1, 2기 정책자문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3기 자문단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성을 확대추진, 금번 조례를 개정해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대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시대 주역으로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며, “정책자문단과 함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발굴 및 실현에 기여하는 선진외정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디지털 성평등 인권 실천교육

전주시가 디지털 성평등 인권 실천교육에 나섰다.

시와 전주시 인권센터는 1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소수자 등 각 분야별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인권학당 ‘새로고침’을 열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가 최근 이슈화 된 ‘#미투’와 관련, 인권단체와 함께 올바른 디지털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정책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별칭·여과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사무국장이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사이버성폭력의 정의 및 실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의 유형 및 문제인식 △사이버 성폭력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주시 덕진구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했다.

덕진구는 지난 13일 전북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등 민간, 행정, 학교가 합동으로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수능 전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40분정도 진행됐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전북대학교 일대 마트, 편의점, 주류판매업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미만 술·담배판매 금지 스티커 등을 배포, 부착하는 등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도 벌였다. /송효철 기자

금융중심도시 도약 시민역량 강화

‘금융생활 노하우’ 주제...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개최

대한민국 금융중심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시민들의 경제·금융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전주시민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신문기사의 이해와 금융생활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차선호 한국거래소 차장이 강사로 나서 경제변수 이해와 소액채권 손해 없이 처분하는 방법 등 금융관련 기본지식부터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 했다.

차 강사는 한국산업증권 기업분석부와 한국거래소 채권부 등 금융관련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금융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금융경제 교육을 맡아온 금융전문가다.

특히, 이날 강좌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며 금리의 변동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

항 △금융상품과 세금 등 다양한 경제상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이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접하는 경제관련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규문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돈과 관련된 것에는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하지만 사실상 금융상품들을 이해하거나 제테크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은 흔치 않다”며, “이번 강좌가 시민들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금융지식을 함양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아카데미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연말연시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 전개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전북경찰, 도내 주요 도로서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불시에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합동 단속반은 지난

13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와 음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및 자격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금지, 운전중 DMB 시

청 및 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교통안전 계도활동도 펼쳤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최근 국민청원에서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계도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차츰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 본격화... 자치회 구성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자치회 구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드는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 내 자생단체 등 주민과 상인, 건물주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옥마을 주민·상인·건물주 등과 꾸준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주민들의 힘으로 한옥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마을 자치회 구성에 나선 것은 그간 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인 이슈와 관심 속에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주민들은 쓰레기와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주민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기인 총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주요 축제와 행사 등의 일정을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참여를 이

끌어내고 거주민과 관계자, 관계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SNS 주민소통방을 개설해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자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과거에도 한옥마을에 많은 조치가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화합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구성된 자치회는 한옥마을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고, 편협 되지 않은 넓은 마음으로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뭉쳐 진정한 한옥마을의 번영을 위한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